

전남대병원 '주 1회 휴진' 초읽기...환자들 '불안'

의대교수 비대위 오늘까지 설문 전국적 동참 분위기 속 통과 예상 비대위 보관 사직서 개인에 돌려줘 개별적 제출에 교수 이탈 여부 주목 조선대는 상황 더 지켜보기로

전국 주요 대학 병원들의 추세에 맞춰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정기 셧다운(휴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셧다운 시행을 위해 자체 설문 조사에 나서는 한편 비대위에 사표를 제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 개인이 학교측에 직접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직 절차도 전환했다.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마저 행동에 나서자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전남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대 비대위)는 25일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다시 교수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는 일괄제출을 하지 않고 개별 교수들에게 다시 되돌려준 뒤 제출 의사가 있는 교수들이 직접 학교측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대 비대위는 전임교원·임상교수 420명 가운데 222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은 의대 교수들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다. 이와 함께 전대 비대위는 24-25일간 주 1회 정기 휴진에 관해 전대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온라인 총회를 통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대학별 사정에 맞춰 우선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는 방안도 결정했기 때문

이다. 이달 초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충북대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 병원들도 주 1회 정기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 참가 중인 전대 비대위는 주 1회 외래진료 휴진·수술 미실시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2개의 항목을 제시, 교수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기존에 각 진료과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준법 근로를 유도했지만, 한계에 달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의 방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전국 의대교수비대위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도 짚는다. 설문조사에서 다수 찬성의견이 나올 경우 전대 비대위는 다시 교수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일과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대병원 교수진 대부분이 두 달 넘게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는 탓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 설문조사에 찬성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주 1회 정기 휴진이 결정되더라도 필수 의료인 응급·중증 관련 진료과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조선대 의대교수 비대위(조대 비대위)는 주 1회 정기 휴진과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와 의대학생들의 집단 유급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다. 결국 조선대 비대위는 각 진료과 교수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52시간 준법근무를 이어나가면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나 의대 학생들의 불이익이 현실화 되면 즉각 임시 총회를 열어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차량 카페 돌진사고 중상 40대 6일만에 숨져

광주시 동구에서 발생한 카페 차량 돌진사고로 크게 다친 40대가 사고 6일만에 숨졌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발생한 카페 차량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은 A(42)씨가 24일 새벽에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직접 인근의 은행 직원으로 당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 외에도 카페 손님이었다던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운전자 B(65)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등 영상을 통해 B씨의 차량이 사고 직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초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라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들에 흥기 휘두른 아버지, 테이저건 맞고 숨져

"흥기 버리라" 경고 거부하자 경찰이 등에 쏘...아들은 중상

아들에게 흥기를 휘두르던 의붓 아버지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된 후 숨졌다.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년 전 B씨의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2년 전부터 가정불화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별거중인 아내는 B씨와 딸 C씨와 함께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아내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C씨를 흥기로 위협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C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B씨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1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흥기로 B씨의 머리와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며 다른 한 손에는 흥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흥기를 내려 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A씨가 이를 듣지 않아 테이저건을 발포했다. 테이저건은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전극(電極)침을 발사하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다. A씨는 등과 엉덩이에 테이저건의 침을 맞았지만 계속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6시 30분께 북부경찰서로 이송될 때까지 발정했던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7시 30분께 사망했다. 1차 검시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원인 불명 심정지'로 확인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으며 고혈압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25일 진행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의 날' 맞아 인권 체험 법의 날을 앞둔 24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솔로몬파크 저스티스홀에서 열린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하는 인권교육에서 북구청직원들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법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운전 못 막아...이번엔 동부경찰 교통과장 대기발령

광주의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때문에 또 대기발령됐다. 2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교통과장(경정)이 대기발령됐다. 지난 12일 부하 직원인 B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낸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전해졌다. B 경감은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신도대기중인 앞차

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과장의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광주경찰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5건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올해 광주서부경찰 소속 직원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난 15일 서장과 과장 등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월 어머니집 관장 성적 모욕 부상자회 전 간부 2심도 실행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SNS로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5회 전송하고, 육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오월 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누병기간 다른 범죄와 이번 범죄

까지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서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공약을 했지만 피해자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